

인문학으로 보는 감염병 출간『감염병의 장면들』

이지수 기자 ssu1404@knu.ac.kr

우리학교 인문학연구원 HK+ 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에서 『감염병의 장면들』을 펴냈다.

움직이는 역사 안에 있는 사람은 역사의 움직임 전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감염병의 장면들』은 인류가 경험해 왔던 다양한 감염병에 대해 짚어보며 우리가 처한 팬데믹 상황을 인문학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감염병의 시대에 우리는 아프지 않기 위해, 매일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세균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책에서는 감염병의 정확

한 원인조차 알 수 없었던 고대부터 의학이 발달한 21세기에 이르기까지 감염병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였는지 말해준다. 먼저 서구의 결핵과 한의학 병 개념인 노瘵(말기에 이른 폐결핵)를 가져와 감염병에 대한 서구와 동아시아의 관점 차이를 설명한다. 전염의 배후에 관한 설명을 보면, 서구에서는 균을 몸의 외부로부터 기원하는 전혀 다른 존재로 보고 있다. 따라서 결핵을 일으키는 균의 존재적 기원이 인간과는 무관하며, 그것이 인체 내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잠재적인 병인으로서 박멸의 대상이 된다. 반면 한의학에서는 균과 의미상

통하는 '충'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존재임과 동시에 우리 몸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존재로 보았다. 그렇기에 노瘵를 일으키는 충은 몸에 작용해 증상을 나타내기 전까지 인식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저자는 동서양이 병인의 존재나, 눈에 보이는 병의 증상으로 감염병을 인지해 세균이 병 자체와 동일시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감염병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코로나바이러스의 존재 또한 코로나 병 자체와 동일시되어 바이러스의 검출 여부로 환자의 지위가 결정된다. 감염자라는 이름으로 오염된 몸이 되어 사회로부터 격리된다

는 것이다. 저자는 다양한 감염병이 수시로 등장할거라 예측하는 이 시점에 세균의 존재 자체에만 치우쳐 있는 인식으로부터 한걸음 물러나야 한다고 조언한다. 세균으로부터 몸의 아

픔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맥락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다 전체적인 상황을 살피고, 감염병의 시대에 더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다.

한편 저자는 아시아 전역에서 많은 이들의 숭배와 사랑을 받는 하리티 이야기로 연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우리가 각자 처한 개인적, 국가적 불안과 고통에 공감한다면, 팬데믹은 전 세계적 연대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바라본다.

감염병에 대한 의학적 지식은 역동적으로 변화되어 온 데에 비해, 그에 대한 사회적 불안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일상을 뒤흔든다. 저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감염병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인간, 동물, 환경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강조하며 타자의 행복을 바라는 인간다움을 동물을 향해서도 조금씩 넓혀가야 한

다고 말한다.

또한,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위험 인식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된 불확실성에 대해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위험에 대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는 것이 갈등을 심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의료와 인문학,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을 것 같은 주제가 『감염병의 장면들』에서는 어우러진다. 책을 집필한 인문학연구원 HK+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은 '생로병사(生老病死)'라는 주제 아래 통합의료인문학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인문학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사회적 책무임을 자각하고 다양한 작업을 수행 중이다. 철학, 예술, 종교, 역사를 넘나들며 감염병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길러보고 싶은 이들이 있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축구U리그 올해부터 승강제

이동건 기자 ehdrljs3589@knu.ac.kr

2022년 대학축구 U리그가 1, 2부로 나뉘어 승강제로 운영된다. 우리학교 축구부는 1부 리그에 소속되어 우승에 도전한다.

2021년 U리그는 승강제 없이 권역을 11개로 나누어 진행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U리그1(1부)와 U리그2(2부)로 나뉘어 치러진다. 올해 U리그에는 전국 88개 대학팀이 참가하며 6개 팀이 승격 및 강등된다.

1부 리그는 총 36개 팀을 4개 권역으로, 2부 리그는 총 52개 팀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새롭게 도입된 승강제에 따라, 2부 리그의 각 권역 1위 6개 팀은 다음 시즌 1부 리그로 승격되고, 1부 리그의 각 권역 최하위 4개 팀과 차하위 중 승점이 낮은 2개 팀은 2부 리그로 강등된다. 1부 리그는 3월 18일 개막하고 오는 11월까지 리그가 치러지며 각 권역 1위 4개 팀이 토너먼트로 왕중왕전을 치를 예정이다.

대한축구협회(KFA)에 따르면, 이 같은 제도는 대학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동기 부여를 위해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



우리학교 축구부가 춘계축구대항전에 참가했다

(사진=김상훈 선수 제공)

라 오래전부터 논의가 계속된 끝에 도입됐다. KFA는 상위권 팀들이 강팀 간 치열한 경기를 통해 프로에서도 통할 수 있는 기량을 갖추도록 하고, 패배에 익숙했던 하위권 팀들이 승리의 경험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1부와 2부팀의 구분 기준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의 대회 성적이다. 최근 3년간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우리학교 축구부는 U리그1 2권역에 소속됐다. 우리학교 같은 권역에 속한 학교는 ▲광운대 ▲아주대 ▲명지대 ▲인천대 ▲단국대 ▲KC대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국제사이버대이다.

우리학교는 2권역에서 아주대,

단국대와 함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이에 대해 축구부 주장 오영빈(스포츠지도학 2020) 선수는 "매해 그렇듯 우승이 목표이며 한 경기 한 경기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각오를 전했다. 또한 "좋은 훈련 분위기, 전술적으로는 빠른 압박과 간결한 패스 플레이가 우리의 강점"이라며 "우리가 다른 팀에 비해 부상도 많고 선수가 부족한 편이지만, 부족한 구성을 잘 메꾸고 선수진 모두가 한 팀으로 경기하는 것에 더 익숙해지면 좋은 성적은 따라올 것"이라는 올 시즌 전망을 내비쳤다.

우리학교 축구부 김광진 감독은 힘든 시즌이 예상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감

독은 "축구팀에는 최소 33명의 선수가 필요하지만, TO가 감소해 현재 22, 23명의 선수뿐"이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교의 명예가 걸려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전했다. 또 "힘든 상황에서도 선수들이 열심히 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한편 우리학교 축구부는 U리그 초대 우승팀이며 경기권역의 강호로 불린다. 2017, 2018년에 권역 1위를 차지했으며 2020년에는 왕중왕전에서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달 진행된 제58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통영기 대회에서는 동의대에 1대2로 패하며 8강에서 대회를 마무리했다.

여자농구 공동3위 기록 쾌거

이태영 기자 ysmhip6@knu.ac.kr

지난 1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주최한 'KUSF 클럽 챔피언십 2021'에서 여자농구부 'ZONE'이 공동 3위를 기록했다.

6명의 선수들로 구성된 ZONE은 15일에 열린 중앙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와의 예선 경기에서 각각 35대 11, 40대 13으로 승리했다. 이화여자대학교와의 경기는 34대 8로 마무리되며 ZONE은 상대팀의 4배에 가까운 득점을 기록하는 등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였다. 하지만 다음날 열린 경기대학교와 마지막 예선전에선 20대 22로, 서울대학교와의 파이널전에선 26대 38로 패했다.

ZONE은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경기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이 득점을 기록했다는 뜻깊은 성과를 남기기도 했다. ZONE은 4번의 예선전, 1번의 파이널전에서 총 16번의 3점슛을 성공시키는 등 총 155점을 득점했다.

김미지 (체육학 2019) 선수는 "5명이 쉬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신형섭 감독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고맙고 다음에도 좋은 결과를 보이겠다"고 밝혔다.